

신소설의 여성상 연구

-근대적 시공간성을 중심으로-

백승훈

초록

근대화는 여성을 어떻게 재현하는가? 그 동안 한국의 근대성 연구는 주로 근대적 경제제도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근대화는 산업 자본주의의 출현뿐만 아니라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으로서의 문화영역에서의 근본적인 변화도 포함한다. 본 연구는 근대화의 문화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되, 남성이 재현하는 여성상을 밝히는 것에 관심이 있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은 자주 주변화되며, 근대화 또한 남성 중심의 질서 아래에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한국의 근대화 논의에서 배제되어 왔던 것들에 관심을 가지며 이를 통해 한국의 근대화 연구의 폭을 넓히려는 함의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의 근대화가 시작된 20세기 초반의 신소설을 통해 근대화와 여성의 재현문제를 다루려 한다. 본 논문은 근대성 연구의 광범위함과 애매함을 줄이기 위해 특수한 시공간성으로 근대를 한정시켜 다루며, 이 맥락에서 여성의 재현을 논의한다. 20세기 초반은 인간이 세계를 경험하는 기본틀을 이루는 시공간성이 근본적으로 변화한 시기였다. 국권상실의 위기를 불러일으킨 다양한 정치적 사건들은 '이전 시대와 구분되는 새로운 시대'라는 시간에 대한 관념을 만들었다.

사회진화론은 19세기 초반 유럽에서 출범하여 일본, 중국을 경유하여 한국에 도착하였다. 사회진화론은 새로운 시대라는 당대의 특수한 시간관념과 결합하여 새로운 시공간성을 만들어 냈다. 이 시공간성은 생존을 위해 당장 무엇을 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시간관념과 세계를 우승열패의 도식에 따라 재편하는 공간관념을 말한다.

근대화의 주체였던 남성 지식인들은 이러한 시공간성을 내면화하였으며, 자국의 상황에 부끄러움을 가지게 되었다. 야만인이 문명인과 접촉할 때 필연적으로 느끼는 부끄러움은 근대화의 강박적인 시간관념을 강화시켰다. 이 맥락에서 여성은 자국의 부끄럽고 열등한 상태를 가리키는 표지로 재현되었다. 근대화의 주체였던 남성은 문명한 국가에 대해 가지는 열등감을 여성에 대한 교육의 강조를 통해 해결하였다.

I. 서론

1. 문제제기

근대화는 여성을 어떻게 재현하는가? 그 동안 한국의 근대화 연구는 내재적 발전론, 식민지 근대화론, 압축적 근대화론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연구들의 공통된 연구대상은 근대적 경제제도이다. 그러나 근대화는 전근대와 구분되는 경제제도의 출현뿐만 아니라 인간이 삶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도 포함한다. 이 글은 근대화와 재현을 다룸으로써 근대화의 문화적 측면을 다룬다. 이를 통해 그 동안 다소 한정되었던 근대화 연구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이 글은 특히 근대화 과정에서 남성에 의한 여성의 문화적 재현에 관심이 있다. 한국의 근대화 또한 남성 중심적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여성은 전통적인 역할을 포기하는 동시에 남성 주도로 세워진 새로운 질서에서 자리를 잡도록 요구 받았다. 이 연구는 자주 주변화 되는 한국 사회의 여성에게 근대화가 어떻게 작동했으며 그 결과로 나타난 여성의 문화적 재현을 밝히는데 관심이 있다. 이 연구는 문화와 여성에 대한 관심을 통해 그 동안 근대성 연구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측면을 조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한국의 근대화가 시작되는 시기인 20세기 초반 애국계몽기의 신소설과 (남성)작가의 사상 등에 나타난 여성상을 분석함으로써 이 질문에 답하려 한다. 소설 작품은 작가의 세계관을 반영한다. 작가의 세계관은 그가 처해있는 시대적 상황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소설은 당대의 시대상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게다가 20세기 초반 지식인들은 소설이 대중을 계몽할 수단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신소설은 ‘집 나온 여성’의 이야기가 압도적인 장르이다. 이는 당대 소설이 계몽의 도구였던 것을 고려할 때, 신소설이 남성 지식인이 만들어 낸 규범적 여성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재료임을 뜻한다.

2. 선행연구 검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소설의 초기 연구는 여성 주인공이 당대를 함축하는 인물이 될 수 없다는 연구자들의 선형적 판단에 의해 소설의 단편적 요소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가령, 임화는 신소설이 묘사하는 철도 등의 근대적 풍경에도 불구하고 '~하더라'라는 어미가 전근대성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최근의 연구는 신소설에 대한 초기 연구가 역사를 연속성 및 발전으로 파악하려는 역사주의에 사로 잡혀 있다는 비판을 공유하며 이루어졌다. 이 중 신소설의 여성상에 관심을 가지는 연구들은 신소설이 '국민을 생산하고 교육하는 어머니'라는 규범적 여성상을 재현하고 있는 것에 동의하는 편이다.(김기란, 2011; 장노현, 2013; 최창수, 2000) 세부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들의 주장은 신소설에 나타난 여성상이 당시 새로운 국가 건설이 요구되었던 사회적 상황 속에서 여성에게 요구되는 국민양성의 역할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 글이 최근의 연구와 구분되는 점은 근대화를 특수한 시공간성의 출현으로 파악하고 이 맥락에서 신소설에서 재현되는 여성상을 이해하는 것이다.

근대, 근대화, 근대성이라는 용어는 지칭하는 대상의 광범위함과 용어의 추상성 때문에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근대는 일반적으로 역사상 특정한 시기에 시작된 단일한 기간을 지칭한다. 이 기간에 속하는 사회의 구성요소들이 근대성, 사회가 근대성을 획득하며 근대로 이행하는 과정이 근대화이다. 이 글에서는 근대 혹은 근대화라는 개념을 다른 시간성과 공간성을 지닌 특정한 시공간성으로 접근한다. 이러한 접근에서 근대성은 산업자본주의, 국민국가, 개인 등의 일련의 실제적인 사회 역사적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시간성의 특수한 경험과 역사의식을 말한다(Pelski, 1995 : 9~13). 즉, 전근대-근대의 단일하고 직선적인

시간관념 자체가 일반적으로 근대라고 칭하는 시대의 특수한 관념인 것이다.

이렇게 근대를 하나의 시공간성으로 한정함으로써 근대에 관한 논의의 광범위함과 애매함을 줄일 수 있다. 또 특수한 시공간성으로의 근대와 여성의 문화적 재현을 논함으로써 분석범위가 확장된다. 신소설을 통해 근대의 여성상을 밝히려는 시도들의 분석범위는 국민국가 내부로만 한정되어 있다. ‘국민을 생산하고 교육하는 어머니’라는 규범적 여성상은 새로운 국가건설의 임무를 맡았던 남성 지식인들의 의도는 확인할 수 있지만, 20세기 초반 조선과 일본 제국주의 및 서구 사이의 관계를 다루지 못한다. 한국의 근대화는 일본 제국주의 및 서구와의 접촉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이 과정은 전통적인 순환적 시간관념과 화(華)/이(夷)로 세계를 파악하는 공간관념의 파괴도 동반하였다. 이 연구는 전통적 시공간성이 무너지고 일제 및 서구와의 관계를 통해 재구성된 근대적 시공간성을 다룬다. 이 연구는 일제 및 서구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새로운 시공간성이라는 맥락에서 재현되는 여성상을 분석함으로써 선행연구와 구분되는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글은 대표적인 신소설 작가인 이인직과 이해조를 중심으로 정치사상, 소설작품을 통해 근대의 시공간성을 제시할 것이다. 뒤이어 이러한 시공간성에서 여성이 어떻게 재현되는가를 확인할 것이다.

II. 본론

1. ‘새로운 시대’라는 감각

20세기 전후는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난 시기이다. 1876년 일본에 의한 강제적 개항을 필두로 임오군란(1882), 동학농민운동(1894), 갑오경장(1894), 대한제국의 성립(1897), 일본과의 보호조약(1905)과 정미7조약(1907)년 등 구사회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건들이 압

축적으로 일어났다. 이 사건들로 인해 20세기 전후는 그 앞, 뒤의 시기와 뚜렷한 단절을 경험한다. 시공간의 관념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보여주는 것이 ‘새롭고 낯선 세계’라는 인식이다.

20세기 전후의 신문, 학술지, 그리고 작품에는 지금의 현실이 이전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표현이 많이 나타난다. “지금 세상은 전과 달라”, “시대는 이왕 쇠국시대와 같지 않아” 등의 표현이 대부분의 신소설에서 등장하며 반복된다. “백 년의 낮과 밤을 분간하지 못하고 계절을 깨닫지 못하여 졸음으로 코를 코는 소리가 우레와 같이 몽롱하거늘 무리도적이 그 틈을 엿보고 돌입하여 등 당시 사람들은 자고 일어났더니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는 비유를 사용하고 있었다.

2. 사회진화론의 강박적인 시간

당시 사람들이 직면하게 된 새로운 시대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생존경쟁의 시대였다. 이를 보여주는 지표가 당시 유행했던 사회진화론이다. 사회진화론은 19세기 중엽 유럽에서 출발해 일본, 중국을 거쳐 조선에 유입됐다. 사회진화론은 당대 지식인들뿐만 아니라 민중들도 ‘생존경쟁은 진화의 원동력’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정도로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전복희, 1996). 사회진화론은 일본, 중국을 거쳐 유입되었고 이를 수용하는 주체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 변용(유봉희, 2013)이 일어나지만 이들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강박적인 시간관념과 국가 간 경쟁이라는 공간관념을 공유하고 있었다.

유럽은 부국 강병하고 進取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人智는 날마다 進就하고 文化는 달
마다 발달하며, 天地의 이치를 궁리하고 만물의 성질을 탐구하며 亡誕하고 附會한 말

은 단절하고 정확하고 진실한 논만이 흥행하며, 학술이 아울러 융성하고, 사업이 함께 번창하며, 안으로는 올바른 政令과 文教가 시행되고, 밖으로는 이익이 있는 貿易과 通商을 도모하여 上下가 모두 알맞은 자리를 가지고 있어 사람마다 뜻을 성취하였다.

아시아는 이와 반대로 토지는 황폐하고 백성들은 安逸하며, 옛 것만을 고수하고 안일만을 찾아 원기는 쇠퇴하고 총명은 蒙蔽하며, 物理는 淆亂하고 邪說이 유행하며 정치는 믿을만하지 못하고 교육은 성실하지 않아 상하가 원망하고 官民이 서로 능멸하여 사랑하고 추대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배반할 마음만 있으니, 별안간 일이 생겼을 때에 그들로 하여금 內患을 막고 外敵을 방어하려 한다면 어찌 狼狽가 없지 않겠으며 束手無策일 것이다.

소洲의 백성들의 성정과 기량은 우리나라 사람과 다름이 없다. 우리나라 사람은 능히 하는데 소洲人은 어찌 능히 하지 못하겠는가. 우리나라 사람이 하는 바를 나라 안에만 그치지 말고 나아가 전주와 함께 하여 수백년이나 퇴폐한 아시아의 문화를 만회하고 부강한 유럽과 어깨를 겨루어야 하며, 또 시기를 잃지 말아야 하니 일의 성패는 시기의 득실에 있는 것이다.

위 글은 우월한 유럽과 열등한 아시아를 대비하면서 아시아의 열등함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고 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조선도 노력하면 유럽과 같이 문명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호소하고 있다. 우승열패의 도식을 수용하되, 부단한 노력을 통해 승자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은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강박적인 시간관념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관념은 위 글에서 필자가 강조한 부분에서 잘 드러난다. 아시아는 유럽과 동일한 연대기적 시간(19세기)을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수 백 년의 시간을 만회해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유교의 전통을 이어받았던 위정척사파의 시공간에 대한 관념과 비교하면 사회진화론이 보여주는 시공간성의 특수성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진화론에서 인간의 역사는 (살아남기만 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진보한다는 관념을 함축하고 있다. 그러나 위정척사파는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의 삶이 더 암울해진다고 본다.(이상익, 1997) 이들은 모든 존재가 끊임 없이 생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역사 또한 부침을 겪으며 순환적으로 반복된다고 믿었다. 예를 들어 김평묵은 인간의 역사를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이 순환적 과정으로 이해하였고 삼황(三皇)이 지배했던 시대를 이상향으로 삼았다. 이들은 극과 극은 서로 통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대의 시대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도를 실현하기만 한다면 과거의 평화로웠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이인직과 이해조의 정치사상, 소설 등에서 나타나는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의 취약성은 이들이 사회진화론을 수용하여 20세기 초반 국권상실의 원인을 자국의 사회내부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이인직은 그의 [사회론]에서, 이해조는 [윤리론]에서 우승열패의 도식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민의 각성을 요구하였다.(다지리 히로유키, 2003; 유봉희, 2013) 둘의 차이가 있다면 이인직은 국민의 교육을, 이해조는 개인의 윤리를 강조하였다는 것이다. 세부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일본 제국주의 및 서구는 자국이 결여한 것을 소유하고 있고 자국의 생존을 위해 그 요소들을 모방해야할 사회였다. 이 요소들은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것들로 입헌군주제, 근대적 교육체계, 근면, 활동력, 주거의 청결함 등 이었다.

3. 재현된 여성상

이제 대표적인 신소설작품인 이인직의 <혈의 누>, <은세계>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서술한 근대적 시공간성이 어떻게 작품 안에서 형상화되는지 밝히고 이 맥락에서 재현되는 여성상을 살펴보겠다. 야만인이 문명인과 대치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항상 느끼는 감정이 부끄러

움이다. 이 부끄러움은 국권상실의 위기와 사회진화론의 수용이 만들어 낸 강박적인 시간 관념을 강화시킨다. 부끄러움은 야만인들이 현재의 상태를 벗어나게 만드는 강력한 동인이다. 사회진화론을 수용하면서 강박적인 시간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이인직, 이해조 등 신소설 작가들의 작품에서 조선에 대한 부끄러움을 나타내는 구절은 작품 전반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아마도 사람의 일은 사람이 짓는 것이다. 우리 나라 사람은 제 몸만 위하고 제 욕심만 채우려 하고, 남은 죽든지 살든지, 나라가 망하든지 흥하든지 제 벼슬만 잘하여 제 살만 찌우면 제일로 아는 사람들이다. <혈의 누 66쪽>

강원 일도에 먹고 사는 재물을 뺏어다가 서울 있는 상전들에게 바치는 일이라. 상전이라 하면 강원 감사가 남의 집에 문서 있는 종이 아니라 무서워하기를 상전같이 알고 믿기를 상전같이 믿고 섬기기를 상전같이 섬기는데 그 상전에게 등을 대고 만만한 사람을 죽여 내는 판이라. <은세계 10쪽>

첫 번째 인용문은 국권상실 위기의 원인을 조선 내부에서 찾고 있다. ‘우리 나라’ 사람의 이기심이 나라를 망하게 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인용문은 강원 지역의 하급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고발하고 있다. 위 인용문 외에도 신소설 전반에는 구질서에 대한 부정적 진술로 넘쳐나는데, 이는 자국이 일제 및 서구와 비교했을 때 부끄러운 곳이라는 감정을 함축하고 있다. 구체제에 대한 고발을 주제로 하는 작품 <은세계>는 요즘말로 ‘돈이 지배하는 세계’, ‘쩨의 전쟁’ 등으로 바꿀 수 있다. 문명한 일제 및 서구와 비교 했을 때 자국은 극단적 이익 추구가 난무하는 천박한 세계라는 것이다.

조선 풍속 같으면 청상과부가 시집가지 아니하는 것을 가장 잘난 일로 알고 일평생을 근심 중으로 지내나, 그러한 도덕상의 죄가 되는 악한 풍속은 문명한 나라에는 없는 고로, 젊어서 과부가 되면 시집가는 것은 천하만국에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정상 부인이 어진 남편을 얻어 시집을 간다. <혈의 누> 85쪽.

옥련의 총명재질은 조선 역사에는 그러한 여자가 있다고 전한 일은 없으니, 조선 여편네는 안방 구석에 가두고 아무것도 가르치지 아니하였은즉 <혈의 누> 83쪽.

여성, 여성이 처해있는 상황은 자국의 후진성, 열등함을 나타내는 지표(indicator)로 사용된다. 첫 번째 인용문은 <혈의 누>에서 주인공 옥련의 신변을 맡게 된 일본인 정상 부인의 재가를 묘사한 장면이다. 이인직은 과부의 재가를 금지하는 조선의 풍속은 문명한 나라의 풍속과 비교했을 때 ‘부끄러운 것’이라는 논리를 펼친다. 두 번째 인용문은 <혈의 누>의 주인공 옥련의 총명함을 묘사하는 부분이다. 주인공 옥련의 총명함을 여성 교육의 부재와 그에 따른 조선 여성의 우매함과 대비시키고 있다. 이러한 부끄러운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이 교육이다. 19세기말~20세기 초의 남성 지식인들은 끊임없이 여성에 대한 교육을 강조한다. 교육은 조선 사회에 결여 되어 있는 서구로부터 배워와 조선에 이식시킬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도가 서사형식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유학’이다. 주지하다시피, 신소설의 여성주인공들은 끊임없이 가정에서 축출되어 문명한 나라로 유학을 떠난다.

옥련이가 구씨의 권하는 말을 듣고 조선 부인 교육할 마음이 간절하여 구씨와 혼인 언약을 맺으니, 구씨의 목적은 공부를 힘써 하여 귀국한 뒤에 우리 나라를 독일국과 같이 연방도를 삼되, 일본과 만주를 한데 합하여 문명한 강국을 만들고자 하는 비사맥 같은 마음이요. <혈의 누> 109쪽.

여보 동포들, 들어 보시오. 우리 나라 국권을 회복할 생각이 있거든 황제 폐하 통치 하에서 부지런히 벌여먹고 자식이나 잘 가르쳐서, 국민의 지식이 진보될 도리만 하시 오. 지금 우리 나라에 국리 민복될 일은 그만한 일이 다시 없소. <은세계> 82쪽.

첫 번째 인용문은 <혈의 누>의 결말 부분으로 주인공 옥련이 조선 부인을 교육하여 문명한 나라를 건설할 목적으로 유학 도중 구완서와 결혼하는 장면이다. 두 번째 인용문은 <은세계>의 주인공 옥남이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 동포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부분을 묘사한 것이다. 재능 있지만 어리고 무능력한 여성주인공들은 일제 또는 서구문명의 세례를 받고 다시 가정으로 회귀한다. 위 인용문들에서 나타나듯이 여성주인공은 자국을 문명국의 반열로 올려놓는 사명감을 깨닫거나 동포들 앞에서 입장 연설을 한다. 이들은 과거의 장소(조선)에 결여되어 있는 것을 미래의 장소(일본 제국주의 및 서구)에서 품고 돌아온다.

Ⅲ. 결론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세기 전후의 조선은 국권상실의 위기를 만들어 낸 사건들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사건들은 당시 조선이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다는 관념을 만들어 냈다. 당시 조선으로 유입된 사회 진화론은 새롭게 열린 시대를 우승열패의 도식이 지배하는 국가관 경쟁체계로 규정하였다. 남성 지식인들은 야만상태에 있는 자국을 부끄러워하였고, 이러한 부끄러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여성을 재현하였다. 이들의 부끄러움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강박적 시간관념을 더 심화시켰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교육에 대한 강조였다. 교육을 통해 부끄러움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서사형식으로 표현된 것이 신소설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여성 주인공의 유학'이다. 담론 차원에서, 근대화의 주체인 남성의 열등감을 해결하기 위해 여성은 교육받아야만 하는 존재로 재현되었다.

<자료>

『대한매일신보』

『한성순보』

<참고문헌>

길진숙. 2004. 「독립신문, 매일신문에 수용된 문명/야만의 담론의 의미 층위」. 『국어국문학』 136: 321-353.

김기란. 2011. 「근대계몽기 매체의 코드화 과정을 통한 여성인식의 개연화 과정 고찰 -『제국신문』의 여성 관련 기사 분석을 통해-」. 『여성문학연구』 26: 7.

다지리 히로유키. 2003. 「애국계몽운동기에 양계초를 매개로 하여 유입된 사회진화론과 이인직」. 『어문연구』 117: 199-224.

유봉희. 2013. 「『윤리학』을 통해 본 동아시아 전통사상과 이해조의 사회진화론 수용」. 『현대소설연구』 52: 349.

이상익. 1997. 『서구의 충격과 근대 한국사상』. 한울.

이인직. 1995. 『한국문학대표작 선집 혈의 누 외』. 문학사상사.

장노현. 2013. 「인종과 위생-의 계몽의 논리에 대한 재고」. 『국제어문』 58: 533-557.

전복희. 1996 『사회진화론과 국가사상 : 구한말을 중심으로』. 한울.

최창수. 2000. 「신소설 여성의 근대화와 자기정체성」. 『語文論集』 28: 253-281.

Felski, Rita. 1995. *The gender of moderni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